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과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매월 첫째 주에 가지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3. 다음 주일 점심은 김도향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기도는 이준화 집사님입니다.
4. 2024년 '필리핀 보홀 단기선교' 공동물품 구매를 위한 물품바자회가 이번 주부터 매주 마다 가집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꼭 들리셔서 섬겨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5. 2024년 '필리핀 보홀 단기선교'를 위한 모임이 주일오후예배 후에 계속적으로 가집니다. 참가자는 빠짐없이 전원 참석바랍니다.
6. <하늘문의 만나> 6월호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묵상용·전도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5월 26일	6월 2일	6월 9일	6월 16일
예배기도(2부)	오진석 집사	이준화 집사	이희문 집사	김종영 집사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가정의 주일	김도향 권사 가정	임명희 권사 가정	필리핀 단기선교팀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김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559장(통 305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오전석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시 147:1-12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상처, 기쁨의 찬양으로’	허영진 목사
마무리기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결 단 송	순례자의 노래	다 같 이
*축 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허영진 목사
마 17:14-20 '믿음 앞에서'(3)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새벽기도회 새벽 5:30 <하루문인만>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미 받은 복

아카시아 꽃의 향기에 취한 날이 어제든가 싶는데, 벌써 짙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빠른 계절의 변화 속에 시간의 절박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난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가을 즈음 나뭇가지에 작은 봉오리들이 맺히고 그 꽃봉오리들이 겨울 동안 영하의 날씨와 눈보라를 이겨 내면, 제 계절에 때맞춰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나무 자체의 존재와 함께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동화극 <파랑새>에서 주인공인 틸탈과 미틸 남매는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에게 파랑새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들은 꿈속의 여러 나라를 다니며 파랑새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깨어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파랑새를 발견합니다. 바로 남매가 집에서 기르는 새가 파랑새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파랑새를 찾듯이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복을 찾으려 다닙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에게 복을 빌고, 부적(符籙) 같은 복과 관련된 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든 야곱처럼 인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창 1:28). 우리는 복이 어떤 운이나 자기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갈망하지만, 성경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 '바라크'로,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즉,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비로소 복이라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자체가 어딜 가든 복이 임하는 사람, 그야말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Written by 허영진